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성주 부소장 (sjkim22@bsfng.com)
송정현 연구위원 (jhsong@bsfng.com)

BS금융그룹은 2014년 10월 10일 경남은행을 계열사로 편입함으로써 동남권 대표 지역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자산규모 기준으로 아시아 129위에서 78위로 순위가 상승하고 BS금융그룹의 2020년 달성목표인 아시아 30대, 글로벌 100대 금융그룹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그룹화는 협업이나 점포 중복설치 배제, IT부문 및 후선업무에서의 비용절감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 향상으로 경제 불안기에 버팀목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은행의 대형화는 시장지배력 강화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자금조달, 위험분산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 대출 증대에도 긍정적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효과, 금융IT에 대한 투자여력 증대 등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스마트뱅킹 등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BS금융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실천하는 최고의 사회공헌그룹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남은행에 접목함으로써 경남지역의 사회공헌활동을 단기간에 심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BS금융그룹, 경남은행 편입으로 아시아 30위 금융회사 도약 기반 마련

BS금융그룹은 2014년 10월 10일 경남은행을 계열사로 편입함으로써 부산·경남·울산을 아우르는 동남권 대표 지역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계열사는 BS부산은행·경남은행·BS투자증권·BS캐피탈·BS저축은행·BS신용정보·BS정보시스템 등 7개이며 총자산 91조원, 임직원 8천명의 국내 5위 금융그룹(일반은행 금융그룹 기준)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The Banker」誌의 세계 은행 순위(2013년말 총자산 기준)에 따르면 BS금융그룹은 아시아 129위에서 경남은행을 포함할 경우 78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S금융그룹이 2020년 달성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아시아 30대, 글로벌 100대 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BS금융그룹 경영 현황

(2014. 6월말 기준)

(십억원, 명, 개)

구 분	총자산 ¹⁾	임직원	영업점
BS금융(A)	54,091	4,980	303
경남은행(B)	36,784	2,963	168
A + B	90,875	7,943	471

주 : 1) 은행 신탁계정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버팀목 역할 강화

BS금융그룹의 경남은행 편입은 동일 경제권역내 대형 지방금융회사간 최초의 그룹화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향후 성장경로에 대해 지역 사회 및 금융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그룹화는 대형화에 의한 효율성, 수익성 및 안정성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출 확대,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두 은행간 협업이나 점포 중복설치 배제, IT부문 및 후선업무에서의 비용절감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 향상으로 경제 불안기에 버팀목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 실적 및 자율성 면에서 강점을 가진 지방은행을 둔 동남권에서 금융연관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경제불안기에 시중은행의 대출 위축이 지방은행에 의해 보완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율경영체제의 지방은행을 둔 대경권에서도 동 비율이 높아졌으나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 및 시중은행그룹 계열의 지방은행을 둔 호남권에서는 동 비율이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지방은행의 경기 비탄력적인 대출패턴이 지역기업의 투자가 가지는 경기탄력적 변동성을 낮추어 지역경제의 거시적 안정성을 제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

금융위기 전후 지역별 금융연관비율 비교

(% , %p)

구분	동남권	(경남·울산)	대경권	호남권	(광주·전남)	충청권	강원권
2004~2008년	54.7	37.9	50.4	43.4	40.8	41.5	39.4
2009~2012년	60.4	41.7	54.7	42.2	38.7	40.6	38.5
증감	5.7	3.8	4.3	-1.2	-2.1	-0.9	-0.9

주 : 금융연관비율 = 예금은행 원화대출금 / GRDP × 10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 양준호, “인천 지역금융의 취약성과 지역경제의 악순환”, 경제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 2012

지방은행간 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일본의 사례분석 및 연구결과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그룹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코자이 아쯔시(古財 篤)²⁾는 일본의 지방은행간 통합에 의한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호시 타카코(星 貴子)³⁾는 영업거점을 달리하는 중대형 지방은행간 통합효과가 동일 지역내 은행간 통합이나 다른 지역간 소형은행 통합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영기능의 상호보완 및 고객기반 확대, 영업네트워크의 상호 이용 및 기능집약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다른 유형의 통합에 비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지방은행간 통합 패턴 및 주요 특징

패턴	통합 방식	주요 특징
A	동일 지역내 소형 지방은행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금융 또는 중소기업금융 등 전문분야에 특화 - 한정된 자금과 인원을 특정사업에 집중하여 효율 제고 - 특화분야에 있어 전문성 높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B	동일 지역내 중대형 지방은행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탄한 경영기반 확보 및 고객확대 가능 - 기획, 재무, 인사 등 본부기능 집중으로 경비절감 가능 - 금융상품,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로 고객만족도 향상
C	다른 지역간 소형 지방은행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이 상이하므로 지점 통폐합은 제한적 - 은행간 노하우 공유, 취약분야 보완, 경비절감 기대 - 규모의 경제성 및 시너지효과 미흡
D	다른 지역간 중대형 지방은행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능의 상호보완 및 사업기반의 확대 가능 - 지역경제 및 고객현황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 영업네트워크의 상호이용 및 기능집약으로 비용 절감 - 중점지역 및 미진출 지역에 효율적 자원배분 추진

자료 : 호시 타카코(2014) 재구성

2) 코자이 아쯔시(古財 篤), “지방은행의 규모와 지역경제,” 파이낸스, 2011

3) 호시 타카코(星 貴子), “지역은행의 경영과 재편 방향성,” JRI 리뷰 Vol. 7 No. 17, 2014

BS금융경영연구소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지방은행의 영향정도가 동남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권 기업의 지방은행에 대한 자금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지방은행 대출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계량분석 결과

(분석 모형)

- 2000~2012년 지역 대출금 및 GRDP 원자료를 로그 변환한 데이터를 사용한 로그선형모델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s) 추정

* 모형 : $\ln GRDP = \alpha \ln \text{시중은행 대출} + \beta \ln \text{지방은행 대출} + \mu$

(분석 결과)

① 시도별 패널분석 결과

-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여 추정한 지방은행 대출 계수(β)가 0.0759로 3개 지역을 제외한 경우의 계수(β) 0.0506 보다 크게 나타나 부울경의 지방은행 대출이 다른 시도보다 GRDP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② 광역권 패널분석 결과

- 동남권을 포함하여 추정한 지방은행 대출 계수(β) 0.0761이 동남권을 제외한 경우의 계수(β) 0.0691 보다 크게 나타나 동남권 지방은행 대출이 다른 광역권보다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구분		α	β	조정된 R-sq
시도별 패널분석	부울경을 포함한 경우	0.5962** (0.0462)	0.0759** (0.0236)	0.8600
	부울경을 제외한 경우	0.6933** (0.0577)	0.0506* (0.0257)	0.8352
광역권 패널분석	동남권을 포함한 경우	0.5667** (0.0424)	0.0761** (0.0186)	0.9139
	동남권을 제외한 경우	0.5949** (0.0499)	0.0691** (0.0199)	0.9038

주 : 1) 시도별 패널분석은 16개 시도 중 지방은행 대출이 없는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을 제외한 11개 지역, 광역권은 5대 광역권을 대상으로 분석
 2)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3) ()내는 표준오차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및 경영지원에 긍정적 효과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는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간 통합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행의 대형화가 중소기업 대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자금조달, 위험분산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Peek and Rosengren(1998)⁴⁾의 실증분석에서도 통합을 주도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클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은행(중소기업 대출비중 64%)과 경남은행(62%)은 시중은행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에 우호적이다. 또 부산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경남은행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는 중소기업 대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

(억원, %)

구 분	은행계	시중은행	지방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원화대출금	1,164,977	690,008	99,457	28,539	23,081
중소기업대출금	488,915	239,311	61,455	18,113	14,264
비중	42.0	34.7	61.8	63.5	61.8

주 : 2013년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4) Peek and Rosengren, "Bank Consolidation and Small Business Lending : It's not Just Bank Size That Matter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22 Issue 6-8, 1998, pp. 799~820

한편 일본의 후쿠오카 금융그룹⁵⁾의 사례도 Two-bank 체제의 BS금융그룹 성장 경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동 금융그룹은 2007년 이후 3개 은행(Three-bank)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규슈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였다.

후쿠오카 금융그룹은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전국 및 지방은행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대출 성장세를 시현했다. 지역내 대출 비중도 2008년 78.9%에서 2013년 88.2%로 확대되었다.

후쿠오카 금융그룹의 지역내 대출 변화

(억엔, %)

구 분	2008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은행 대출금	4,344,126	4,430,089	0.4
지방 은행 대출금	1,540,391	1,707,830	2.1
후쿠오카 금융그룹 대출금	79,941	91,046	2.6
(지역내 대출금)	63,077 (78.9)	80,339 (88.2)	5.0

주 : 전국 116행, 지방 64행, ()내는 후쿠오카 금융그룹의 지역내 대출 비중
 자료 : 일본 전국은행협회, 후쿠오카 금융그룹 사업보고서

또한 은행간 통합 이후 ‘FFG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 등을 기획하여 기업 고객의 영업지역 확대, 사업 확장,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전문지 ‘FFG Survey Monthly’ 를 창간하여 그룹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확대뿐 아니라 경영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간 거래관계 개선, 정보공유 활성화,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후쿠오카 은행(Bank of Fukuoka), 쿠마모토 은행(Kumamoto Family Bank), 신와 은행(Shinwa Bank)을 합병하여 3뱅크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IT에 대한 투자 확대로 고객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는 규모의 경제효과(economies of scale)를 창출하고 금융IT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여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ATM 공동사용 및 상호 수수료 면제 등에 따라 고객의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고객에게 비은행 금융서비스 접근기회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S금융그룹은 BS투자증권, BS캐피탈 등을 보유하고 있고 자산운용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경남은행 통합을 계기로 부산뿐 아니라 동남권 지역에 대한 비은행 금융서비스 제공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남권의 경우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금융서비스 부문이 취약한 상황이며 특히 울산 및 경남에는 자산운용업 등 투자기관 사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동남권 비은행 금융서비스 사업체 현황

(개)

구분	부산	울산	경남	서울	전국
투자기관	12	-	-	308	349
증권·선물중개업	115	49	70	661	1,598
여신금융업	374	84	195	1,326	3,891

자료 : 통계청, 2012년 전국사업체 조사

또한 경남은행의 대면 및 비대면 채널망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경남 및 울산 지역의 은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 효용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남권의 은행 점포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0~2013년중 13.8% 증가에 그쳐 전국의 25.1%에 비해 크게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남 지역의 은행 점포수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우리금융그룹에 소속되었던 경남은행의 점포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예금은행 점포수 변화

(개, %)

구 분		2000년	2013년	증가율
전국	은행계	6,115	7,650	25.1
	시중은행	3,977	4,649	16.9
	지방은행	732	972	32.8
	특수은행	1,406	2,029	44.3
동남권	은행계	1,020	1,161	13.8
	시중은행	418	439	5.0
	지방은행	351	426	21.4
	특수은행	234	292	24.8
부산	은행계	520	630	21.2
	시중은행	257	266	3.5
	지방은행	167	240	43.7
	특수은행	89	120	34.8
울산	은행계	112	148	32.1
	시중은행	49	56	14.3
	지방은행	40	50	25.0
	특수은행	23	42	82.6
경남	은행계	388	383	-1.3
	시중은행	112	117	4.5
	지방은행	144	136	-5.6
	특수은행	122	130	6.6

주 : 점포수는 지점 및 출장소 합계, 외은지점 제외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지역사회공헌활동 심화

총자산 대비 사회공헌활동 금액의 비율을 보면 2013년 현재 부산은행이 0.072%로 국내은행 중 가장 높으며 2006년 이후 증가세 또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의 2013년 동 비율은 0.023%로 지방은행보다 낮은 수준에 있고 경남은행(0.044%)의 경우 부산은행 보다 낮은 상태이다.

국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현황

(백만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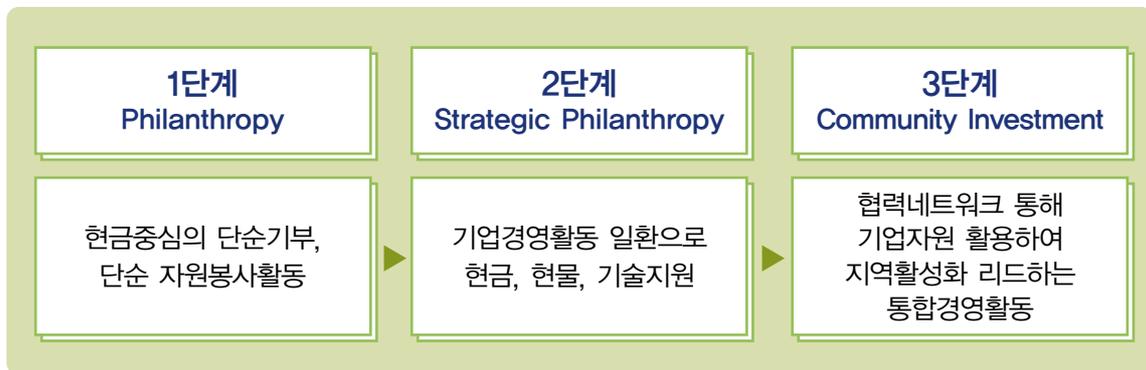
구분	2006년		2013년		증감
	사회공헌금액	총자산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A)	사회공헌금액	총자산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B)	(B)-(A)
4대 시중은행	164,231	0.024	223,454	0.023	-0.001
(KB)	30,364	0.014	64,741	0.022	0.008
(우리)	28,460	0.015	53,636	0.020	0.005
(신한)	47,861	0.027	54,588	0.022	-0.005
(하나)	57,546	0.046	50,489	0.028	-0.018
3대 지방은행	20,495	0.031	74,293	0.060	0.029
(부산)	7,133	0.031	33,967	0.072	0.041
(대구)	9,551	0.041	24,444	0.059	0.018
(경남)	3,811	0.019	15,882	0.044	0.025

자료 :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BS금융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2000년대의 단순 자원봉사활동이나 현금기부 중심의 단계에서 벗어나 2011년부터 문화 예술, 교육 장학, 사랑 나눔, 지역사회 등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자선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메세나부문 지원 규모에서 은행중 부산은행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지원 10대 후원기업상을 수상했다.

BS금융그룹은 지역사회와 시민, 고객의 행복을 위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실천하는 최고의 사회공헌그룹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BS금융그룹의 발전된 사회공헌활동을 경남은행에 접목함으로써 경남지역의 사회공헌활동을 단기간에 심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Andrew Wilson 사회공헌활동 발전 단계



자료 : Andrew Wilson, Making community investment work,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Geneva, Business and Society Programme :
Discussion papers series, No.118, 2000.

지역경제와의 새로운 상생모델 제시

국유은행에서 민영은행으로 전환된 경남은행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BS금융그룹은 경남은행의 계열화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지역경제정보를 확충함으로써 양질의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신규투자, 일자리 창출 등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었다.

동남권지역은 산업적으로도 긴밀한 연계관계를 지니고 있다. 동남권 지역의 중추적인 지역금융회사간 통합은 지역경제 및 산업정보 공유, 규모의 경제효과 증대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모델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초우량 지역금융그룹



BS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S금융지주(www.bsin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 BS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sfng.com

BS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S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